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박찬우 (pcw742@kdb.co.kr)

- ◆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수립 및 추진’
 -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
- ◆ 동 분류체계는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21.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정부의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 동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 연합,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국제기준 및 국내 산업 특수성과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됨

*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동 가이드라인은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 및 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의 2부문으로 구분되며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

- (녹색 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포함
 - 또한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기후변화 대응, 오염 저감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도 반영하여 총 64개로 구성
 - 반면,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배제

녹색 부문 주요 경제활동

유형	분야	경제활동
온실가스 감축	산업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재 부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발전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기 에너지 저장 및 전환
		수송
	도시건물	제로에너지 특화 건물, 도시개발
	이산화탄소포집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영구격리
기후변화 적응	소재부품제조	기후변화 적응 소재, 부품, 장비 제조
물	하폐수관리	하폐수 관리 및 물공급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순환경제	메탄가스활용	메탄가스 포집, 처리 및 활용
	오염	대기 및 해양
생물다양성	생태계 복원	육상, 해양, 산림 생태계 복원

- **(전환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한시적으로 분류체계에 포함
 -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허용하는 LNG발전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반영하여 총 5개로 구성

전환 부문 주요 경제활동

유형	분야	경제활동	비 고
온실가스 감축	산업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30년까지
	발전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30~'35년까지
		LNG기반 수소 제조	'30년까지
	수송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운송	'30년까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에 필요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금융 및 산업계는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 가능
-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 예정
 - 단기적으로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부터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신, 투자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 방안도 추진 예정
 - 특히, '23년부터 동 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예정